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려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kaapn.or.kr>



전문간호사가 알려주는 중심정맥관을 가진 환자의 즐거로운 생활



중심정맥관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가벼운 샤워는 가능해요

가벼운 샤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 목욕은
피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몸의 상태가 괜찮다면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4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거운 배낭은 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해요

하루에 30분 ~ 60분간
걷기 등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골프,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이 팔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몸의 상태가 괜찮으면 일을 해도 됩니다.
다만 팔의 움직임이 많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작업이 많다면 관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소독 재료를 준비해서 여행을 가요

여행을 해도 되는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만약 부득이하게 장기간의 여행이 필요하다면
소독이 가능한 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소독 재료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검문 전에 관이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관을 삽입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있다면
운전은 안됩니다.



올바른 중심정맥관 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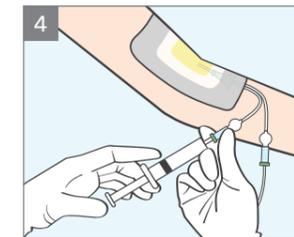
샤워 후에는 소독 부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습기로 인해 소독 재료가
잘 떨어지니까요.
다시 소독해야 한다면
습기가 없는 장소로
옮겨서 안전하게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소독 부위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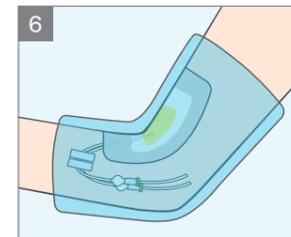
장갑을 껴더라도 관의
끝부분이나 내부는
만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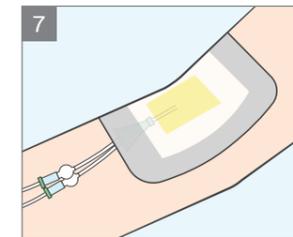
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7일 간격)으로
헤파린 용액을 주입해야
합니다.



관 마개를 재사용 하지
않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관 마개가
헐거워지지 않도록 잘
관찰하십시오.
만약 헐거워져서 갈아야
한다면 재사용하지
않으며 새것으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관 삽입 부위 보호대:
운동을 한다거나, 외출
시에는 양말이나 토시
등을 이용해서 관 삽입
부위 줄이 덜렁거리지
않도록 보호대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림과 같이 소독약이
묻혀져 있는 투명 필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료명: 테가덤 CHG)



관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관 주변에서
가위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에게 알려야하는 증상과 대처법



- 1 헤파린 용액 주입 후에 오한이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
- 2 삽입 부위가 붉게 변하거나 고름/진물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라 치료하기
- 3 출혈이 되는 경우: 관 삽입 부위 출혈-출혈된 피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재료(메딕스)로 다시 소독하기
- 4 관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린 경우: 손상된 관 윗부분을 구부려서 먼저 막은 후에 병원에 연락하기
- 5 고정 장치가 떨어진 경우: 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잘 고정한 뒤 병원 방문하기
- 6 관 삽입한 쪽 어깨와 팔/얼굴이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붓기가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점점 더 심해지거나 아프거나 저리다면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하기